

# 사람의 마음을 당기는 힘, 아날로그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다시 '아날로그'가 화제다. 문화, 산업 등 각 분야에서 '아날로그'의 가치가 재조명 받고 있는 것.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지친 사람들이 힐링의 수단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직접 대면을 통한 끈끈한 관계 유지의 틀로 아날로그로의 회귀를 선택한 것일까. '엔콘텐츠' 필진들과 인터뷰이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른다. 정말 좋아서 누르는 걸까? 좋아요를 받기 위해 누르는 것은 아닌지. 인스타그램 계정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니라 닮고 싶은 자신으로 디지털 흥피를 꾸미는 것은 아닌지. 열등감을 느끼거나 개인 신상 때문에 SNS를 끊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디지털기술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세상의 피곤과 허위를 피해 사람들은 아날로그적 이야기에 공감한다. 김시래 농심기획 고문

디지털화는 이미 예전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지 오래고 인터랙티브 아트, 가상현실(VR) 등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에 비해 실재하는 것, 관객이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 오래된 건축 구조와 냄새, 실재하는 작품을 눈으로 감상하고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최성우 보안여관 대표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 간 소통은 단절되고 있다.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을 매개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콘텐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옛것을 통해 우리의 부모 세대, 옛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권태식 즐리상점 대표



아날로그는 복제가 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원본이다. 이 원본을 얻는 과정에는 불규칙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그 어떤 디지털매체도 흉내 낼 수 없는 분위기를 가진다. 이창주 등대사진관 대표

디지털은 만질 수 없다. 직접 만질 수 없는 가상현실(VR)이나 가상체험은 사람들을 무감각한 생활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메탈라가는 시대 변화에 지배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도 아날로그의 감성을 접한 후 직접 만지고 사용해 보는 것에 열광한다. 디지털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 아날로그와 조화롭게 공존할 것이다. 안신영 재미컴퍼니 대표

미래학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랩 교수가 주장했던 '종이책 종말론'은 한 대의 단말기에 수 백, 수 천 권의 전자책을 담아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서가에 접근하고 한 번의 터치로 내용을 갈무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이책의 멸종이 머지않았다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다. 한 장 한 장 손으로 느끼는 종이의 물성만이 책 읽는 자의 눈은 물론 손과 몸의 감각을 깨우고 책 속 세계로의 접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서은영 서울경제신문 기자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 새로운 것들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사람들은 오히려 예전의 장인들이 만들었던 투박하더라도 짜임새 있는 것들을 더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음악아든, 장소든, 사람이든 나와의 관계를 통해 소유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흥행하는 것이 아닐까. 노리플라이



종로3가 4번 출구에서 1분 거리면 만날 수 있는 익선동거리.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남다른 매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192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때 느꼈던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하자는 콘셉트 덕분이다. 아날로그를 콘셉트로 삼은 기획의 힘도 크지만 무엇보다 낡은 것에서 세련됨을 느끼고, 오래된 것에서 새로움을 느끼려는 트렌드의 변화와 잘 맞아떨어지게 아닐까 한다. 박지현, 박한아 익선다다 대표